

## 북한인권법 사문화(死文化) 정당, 총선 심판방안 토론회

- 일 시 : 2024. 1. 2.(화) 11:30
- 장 소 : 한번 회의실(2호선 교대역 1번출구 우측 큰길 50M 좌전방, 동진빌딩 6층)



1. 送舊迎新! 새해 첫 화요일집회(제241차)가 1월 2일 열린다.
2. 유엔 총회는 지난 19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하고, 컨센서스(전원동의)로 2014년부터 10년 연속 유엔 안보리에 북한 김정은을 겨냥하여 반인도범죄의 책임규명을 위해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3. 그러나 김정은은 어제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남북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전쟁중인 교전국관계라면서 핵 무력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사변을 준비하라고 했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북한주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치명적 약점인 심각한 인권침해를 호도하기 위해 한반도 주민을 핵전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4. 북한인권 개선을 선도해야 할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을 7년 넘게 사문화(死文化)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그 활동이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하여 정당해산 사유(헌법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므로 총선후보를 추천할 자격이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투표로 준엄하게 심판하게 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2023. 12. 31.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번) · 올바른 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 시민모임(올인모) ·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 NK감금피해자 가족회